

제4강 새로운 세계관 · 경제관의 정립

1.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가?

★ 사조(思潮) 변환의 징표들

① 두 가지 변화

20세기 말부터 글로벌 차원에서 변화가 감지되었는데,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 하나는 물질적인 차원에서 세계화와 정보화를 기반으로 한 금융자본의 독세와 불평등의 확대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적인 차원에서 과학과 종교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의식 혁명(consciousness revolution)의 태동이다.

- 오랫동안 주류 패러다임이었던 데카르트-뉴턴의 이원론적/기계론적 세계관은 분리의식을 낳았고 이로 인해 사적 소유의 확대와 물질적 풍요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지만 동시에 불평등도 심화되었다. 현재 글로벌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금융자본의 일방적 독주와 감당하기 어려운 불평등의 심화는 이런 가치관/세계관의 반영이다.

※ 보이는 것(the visible; 경제적 재화, 건축물, 제도 및 법 등)은 보이지 않는 것(the invisible; 정보, 의식, 마음, 의도 등)의 산물이므로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중요하다.

- 한편에서는 인간 의식의 본질에 대한 통합적인 관심과 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관을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고조되어 왔다. 혹자는 이것을 의식혁명이라고 부르는데, 핵심은 과거 신비체험을 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것처럼 근원에서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전체의식 내지 합일의식에 대한 탐구다. 한 마디로 분리의식에서 합일의식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여러 분야에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대체할 새로운 패러다임이 태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 물질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상반된 움직임은 동양의 음양사상에 입각한 음양의 조화, 또는 칼 융이 말하는 대극의 관점에서 대극의 합일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② 풍요 속의 빈곤

- 화폐의 진화와 금융의 발달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최대한의 효율성을 달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상 유래 없는 물질적 풍요를 이룩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에서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배금주의가 만연하게 된 것 또한 사실이다. 한 마디로 물질의 부상(浮上)과 정신의 퇴조(退潮)라 칭할 수 있다.

※미국 버클리 대학의 경제학자 브레드퍼드 드롱(Bradford DeLong)의 추정에 의하면 1인당 소득 90달러인 수렵·채집 경제에서는 1인당 150달러인 B.C. 1000년의 고대 그리스 경제로 진전하는데만 1만 2천년이 걸렸다. 그 후 175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1인당 소득이 약 180달러에 도달했다. 그 뒤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250년 만에 1인당 세계

GDP가 무려 37배나 증가해 현재 수준인 6,600달러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에릭 바인하커의 『부는 어디에서 오는가』(2015)를 참조하라. 그런데 처음 이 책이 쓰여진 후 대략 10년이 지났으므로 현재의 1인당 세계소득은 훨씬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인간의 보편적인 의식수준은 정체 내지 지역에 따라서는 하락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③ 의식 문제의 재부상

- 1990년대 중반 철학자 데이비드 찰머스(David Chalmers)에 의해 의식의 “어려운 문제(hard problem)”가 재확인된 후 의식 관련된 연구가 여러 방면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주류 신경과학자(Gerald Edelman 등)뿐만 아니라 물리학자(Roger Penrose 등), 생물학자 (Rupert Sheldrake 등), 철학자(John Searle 등), 시스템학자(Ervin Laszlo, Fritjof Capra 등), 정신분석 및 심리학자(Ken Wilber, Stanislav Grof 등), 의사(Eben Alexander 등), 영성운동가(Deepak Chopra, David Hawkins 등), 그 외 여러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 2013년 미국과 유럽 연합은 “뇌 역설계” 프로젝트에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과학적 관점에서 의식의 신비를 해결하려는 거대한 노력을 의미한다. 이제 의식의 문제는 과학계의 마지막 거대한 프로젝트가 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는 과거의 게놈 프로젝트에 비견할 만하다.

※ 의식혁명과 뇌 역설계

- 1) 시스템 철학자 에르빈 라즐로(Ervin Laszlo), 초개아심리학자 스타니슬라프 그로프(Stanislav Grof) 그리고 영성운동가 피터 러셀(Peter Russell)은 『The Consciousness Revolution』(2003)에서 공동 토론을 통해 의식 변환은 이미 일어나고 있으며 인류는 결국 새로운 의식을 갖게 될 것이고, 이는 과거 몇 천년 동안 유지되어왔던 의식수준과 결별하는 것이라고 확신에 차 말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관점을 유지하는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의식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대부분 Youtube의 강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 미국의 물리학자 미치오 카쿠(Michio Kaku)는 저서 『마음의 미래』(2015)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두뇌 역설계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다: “2013년 1월, 의학과 과학의 역사를 바꾸는 두 개의 폭탄이 거의 동시에 떨어졌다. 미국과 유럽에서 두뇌연구에 천문학적 예산이 할당된 것이다. 그 동안 두뇌 역설계는 너무 복잡해서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으나, 폭탄이 떨어진 후 하룻밤 사이에 초유의 관심사로 떠올랐다.....첫 번째 폭탄을 투하한 사람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였다. 그는 2013년도 국정연설을 하는 자리에서 “첨단혁신 신경공학을 이용한 두뇌연구(BRAIN)”에 프로젝트에 30억 달러의 연방연구기금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과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이와 거의 동시에 유럽연합에서는 ‘인간두뇌 프로젝트’에 11억 9천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사람의 뇌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트랜지스터와 철로 이루어진 두뇌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연구가 완성되면 인간의 두뇌, 나아가 의식의 본질에 관한 궁금증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사항: 사조 변화에 대한 카프라의 견해〉

프리초프 카프라(Fritjof Capra)는 일찍이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2006)에서 사조 변환의 세

가지 징표로 다음 사항을 들었다.

- 1) 부계사회의 쇠퇴: 부계제도는 모든 분야에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이해하기란 극히 어렵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과 우주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에 영향을 주었으며, 인간은 언제나 남성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부계사회의 붕괴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여성운동은 현재 가장 강력한 문화 조류의 하나가 되었으며, 미래의 진화에 있어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금융자본은 거의 남자들이 좌우한다).
- 2) 화석연료 시대의 종언: 화석연료는 2,300년경에 소진될 것이나 이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정치적 영향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 기간은 화석연료 시대로부터 재생 가능한 태양 에너지의 동력화라는 태양시대로의 변천으로 특징지어지며, 이 변천은 현재의 경제적, 정치적 조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 3) 패러다임의 전환: 세 번째의 변천은 역시 문화적 가치와 연관되어 있다. 이것은 '패러다임 전환'으로 불리는 것을 내포하는 것으로서 특정 실재관을 형성하는 사상, 인식 및 가치의 변화다. 그 중에는 과학혁명, 계몽사상 및 산업혁명 등이 있다. 그 속에는 과학적 방법만이 지식에 대한 유일한 접근법이라는 신념, 우주는 기본적 물질 구성체로 만들어져 있다는 기계론적 우주관, 사회 속의 생을 생존경쟁으로 보는 견해 및 경제적, 기술적 성장을 통한 무제한의 물질적 진보에 대한 신념 등이 내포되어 있다.

※ 카프라가 이 책을 영어로 출간한 것이 1982년이므로 인터넷이 보급되기 이전이었다. 따라서 그는 인터넷이 가져온 광범위하고도 파괴적인 효과를 고려할 수 없었기에 여기에서와 같이 세 가지를 주요한 사조의 변환으로 지적했다고 본다. 만약 인터넷을 경험했다면 새로운 요인을 지적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부계사회의 쇠퇴와 화석연료시대의 종언 및 태양에너지 시대를 예견한 것은 놀라운 통찰이다.

★ 과거의 세계관: 데카르트-뉴턴의 이원론적/기계론적 세계관

① 데카르트의 이원론

르네 데카르트(Rene Descartes)의 철학은 다음과 같은 통찰에서 출발했다.

- "그렇지만 나는 즉시 깨달았다.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도 필연적으로 무엇인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리하여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Je Pense, done je suis).' 라고 하는 이 진리가 회의론자의 터무니없는 상정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하고 확실한 것이라는 점을 나는 인정했다. 나는 이 진리를 내가 구하고 있는 철학의 제1원리로 받아들이기로 판단했다." (『방법서설』, 제4부, 37쪽)

- "아무튼 이런 일로부터 나는 하나의 실체로서 그 본질, 혹은 본성은 다만 생각한다는 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고, 존재하기 위한 어떤 장소도 필요하지 않으며, 어떤 물질적인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이 '나' 라고 하는 것, 즉 나를 존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의 '정신'은 물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며, 또한 정신을 물체보다도 인식하기가 쉽고 비록 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도 정신으로서 온전하기를 그만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37쪽)

→ 데카르트의 이원론(dualism)은 육체와 정신의 분리, 주체와 객체의 완벽한 분리를 전제로 성립하며 정신은 육체보다 우월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육체와 객체인 모든 사물들은 기계처럼 작동하는 것으로 간주했고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과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② 데카르트 이원론의 영향

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논의를 했다. 여기서는 데카르트의 이원론이 철학과 과학을 포함해 여러 방면에 미친 영향에 대한 프리츨프 카프라의 평가를 소개한다. 그의 견해는 다음 구절들에 잘 요약되어 있다:

- 고대로부터 과학의 목표는 자연 질서를 이해하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지혜를 만드는 것이었다. 과학자의 기본적 태도는 오늘날 용어로 말한다면 생태적인 것이었다. 17세기에 와서 이 태도가 반대 극인 음(陰)에서 양(陽)으로, 통합적인 것에서 자기 주장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이다.(70쪽)

- 데카르트의 코기토(Cogito)라고 불리게 된 것은 그로 하여금 물질보다는 정신을 더욱 확실한 것으로 만들었으며, 이 둘은 분리되어 있고 근본적으로 상이한 것이라는 결론을 유도했다. 그래서 그는 "정신에 속하는 것으로 신체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신체에 속하는 것으로 정신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정신과 물질의 분리는 서구 사상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75쪽)

- 완전한 기계론적 세계는 위로부터 신성한 법칙으로 세계를 통치하는 군주적 신, 즉 외부적 창조주를 암시하였다. 물리적 현상 자체는 어느 의미로도 신적(神的)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으며, 과학이 이러한 신을 점점 더 믿기 어렵게 만들자 신성(神性)은 과학적 세계관에서 완전히 사라져 우리 문화의 주류의 특징인 정신적 공백을 뒤에 남기게 된 것이다. 이렇게 자연을 세속화시킨 철학적 근거는 정신과 물질 간의 데카르트적 분리였다.(84쪽)

③ 기계적 세계관의 완성

- 아이작 뉴턴(Isaac Newton)은 만유인력의 법칙과 운동의 법칙 등을 자신이 발견한 미적분학을 이용해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기술함으로써 우주를 거대한 시계로 보는 기계론적 세계관을 완성하였다.

- 뉴턴의 기계적 세계관을 이어받은 프랑스의 수학자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 (Pierre-Simon Laplace)는 우주의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절대적인 기계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 20세기 초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 등장하기 전까지 뉴턴의 고전역학과 이에 기초한 기계적 세계관은 여전히 지배적인 사조였다. 지금도 일상생활에서는 기계적 세계관이 지배적이다.

④ 이원론/기계론적 세계관의 문제

- 데카르트-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에 의하면 인간 존재를 비롯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서로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자연은 인간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확립되었다.

- 따라서 이 세계관이 지배하는 한 분리의식은 너무나 자명하므로 어떤 의심의 소지도 없다. 이로 인해 우리는 서로를 분리된 주체로 인식하였고, 우주만물은 모두 분리된 실체로 간주하는 정신세계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너와 나', '나와 자연'은 모두 분리된 실체일 뿐이다.

- 프리초프 카프라는 데카르트-뉴턴의 기계적 세계관이 많은 영향을 미친 분야로 생의학, 심리학, 경제학 등을 거론하면서 이들 분야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체계적으로 비판하였다. 특히 경제학에 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평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⑤ 데카르트-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이 경제학에 미친 영향

이와 관련된 프리초프 카프라의 비판은 신랄할 뿐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도 대부분 타당하다. 최근 복잡계 이론에서 제기하는 경제학 비판과 거의 차이가 없다. 그의 비판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구절을 일부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오늘날의 경제학은 대부분의 사회학이 그러하듯이 단편화와 환원주의적 접근을 특색을 이룬다. 경제학자는 경제가 생태적, 사회적 전체 조직의 일면에 불과하며, 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은 상호 간에 그리고 대부분이 또한 살아 있는 유기체인 자연자원과 계속적으로 상호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238쪽)

- 경제학자들에 의해 완전히 무시되었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경제현상의 또 다른 측면은 경제의 역동적 진화이다. 경제학이 기술한 현상의 역동적 특성은 자연과학에 들어있는 그것과는 대단히 상이하다. 그러나 아직도 데카르트적 모형의 절대적 엄밀성과 뉴턴 모형의 우아함에 연연하고 있으며, 그래서 현재의 경제적 현실과 점점 멀어져 가도 있는 대부분의 현존 경제학 저서들에는 이런 기본 구조가 슬프게도 결여되어 있다.(239쪽)

- 자본주의이거나 공산주의이거나 간에 오늘날 경제학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성장에 대한 강박관념이다. 한정된 환경 속에서 무한정한 확장은 오직 재난을 초래한다는 것이 이제는 명확히 증명되었는데 경제적, 기술적 성장을 모든 경제학자들은 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속적 경제성장이라는 신앙은 양(陽)적 가치-확장, 자기주장, 경쟁-의 지나친 강조의 결과이며, 절대적 무한 공간 및 절대적 시간이라는 뉴턴적 기본구조와 관련된 것이다.(269쪽)

- 경제의 재편성은 단순한 지적(知的)인 일이 아니라 우리 가치 체계의 광범위한 변화를 내포하는 일이다. 경제학의 중심인 부(富)라는 생각 자체가 인간의 기대, 가치 및 생활 형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생태계적 개념에 의한 부의 정의는 물질적 축적이라는 현재의 의미를 초월하고 광의의 인간적 풍요를 의미해야 한다.(291쪽)

- 최고 가치의 노동의 대부분이 자연 및 사회 환경에 극도로 유해한 기술과 제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의 개념과 실천을 수정하여, 노동이 노동자 개인에게 의미 있고, 충족감을 주며, 사회에 유용하고, 생태계적 질서와 조화로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노동을 이러한 방법으로 재편성하고 실천한다면 노동이 가지는 영적(靈的) 본질을 우리는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294쪽)

※ 방법론의 관점에서 본 경제학, 생물학 및 물리학의 관계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은 토머스 맬서스의 인구론에서 제한된 자원을 놓고 벌이는 사람들의 경쟁이라는 아이디어를 차용해 자연선택이론을 발전시켰으며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경제학은 생물학이 아니라 뉴턴 물리학의 방법론을 채택해 경제이론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만일 19세기말 신고전학파가 태동할 때 물리학이 아닌 생물학의 방법론을 채택해 시장을 기계적 관점이 아니라 유기체적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생태계를 고려한 경제이론을 개발했을 것이고 오늘날 경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경제학은 복잡계 이론이나 시스템 이론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을 것이며 현실 경제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력이 상당히 향상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못된 길을 선택했고, 지금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참고 사항: 주류경제학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의 요지〉

데이비드 오렐(David Orrell)은 『경제학 혁명』(2011)에서 프리츨프 카프라와 마찬가지로 데카르트-뉴턴의 기계적 세계관에 입각한 주류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신고전파 경제학이 뉴턴의 고전물리학의 방법론에 입각해 대칭이론과 균형이론의 관점에서 경제현상을 파악하고 수학적으로 정교한 경제 모델을 추구한 것은 치명적인 실수라는 것이다. 실제 경제는 기계론적인 접근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창발적인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복잡계 이론과 비선형동역학 및 시스템이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문제의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데도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 필자 또한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그의 주장은 대부분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주류 경제학의 방법론을 오랫동안 추종했지만 그의 지적이 전반적으로 옳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 동안 주류 경제학은 논리적 정합성에 지나치게 경도된 나머지 경제주체들 간에 발생하는 복잡한 상호 되먹임(feedback)의 효과를 간과하였다.

- 시장실패(market failure)는 모든 현실경제에서 보편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전파경제학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현상인 것처럼 다루어왔다. 이로 인해 시장의 효율성이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현실의 비효율을 무시하거나 간과해왔다.

★ 새로운 세계관: 전일적/유기체적 세계관

① 새로운 물리학과 새로운 세계관

- 20세기 초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General Relativity Theory)과 닐스 보어와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등에 의해 확립된 양자역학(Quantum Mechanics)은 시공간과 물질의 본질에 대한 고전적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 뉴턴의 절대시간과 절대공간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적인 시공간으로 전환 되었으며, 견고한 물질의 기본 단위로서 입자는 더 이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입증되었기에 입자-파동의 이중성(particle-wave duality)이 확립되었다. 이 두 이론은 인간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 자연 속에서 발견하는 물질의 본질에 대한 인식에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 그렇지만 이런 발견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감지하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시공간이나 입자-파동의 이중성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빛과 유사한 속도를 경험하거나 아원자와 같이 작은 단위를 관찰하는 경우에 국한된다.
- 이런 물리학 혁명이 20세기 초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인간 의식의 변화는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20세기 말에 인간에 대한 의식 연구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것과 때를 같이해 이러한 과학혁명이 우리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참고 사항: 새로운 물리학의 영향에 대한 평가〉

프리츠 카프라는 앞의 책에서 새로운 물리학이 가져온 중대 변화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세계관과는 대조적으로 현대 물리학에서 나오는 세계관은 유기적, 전일적 그리고 상대적이란 용어로 그 특성을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일반 시스템 이론의 의미에서 시스템관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우주를 무수한 물체들로 만들어진 기계로 보지 않으며, 하나의 분할할 수 없는 역동적인 전체로서 그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고 우주의 과정의 패턴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99쪽)
- 고전적 개념의 이 양면성의 상관관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보어는 상보성이란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는 입자상(粒子像)과 파동상(波動像)은 같은 실재의 두 가지 상보적 기술로서 각자는 오직 부분적으로만 정확하며 적용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중국의 음양론을 개관할 때 우리는 이미 상보성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그것은 대립적인 음과 양이라는 하나의 극 속에 상보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보성이란 현대적 개념은 분명히 고대 중국사상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 사실이 보어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101쪽)
- 질량이 에너지의 한 형태라는 발견은 우리의 물질상(物質像)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우리의 입자 개념을 본질적으로 수정하게 하였다. 현대물리학에서는 이제는 질량이란 물질과 상관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입자란 기본적인 물질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에너지의 묶음으로 보는 것이다. 에너지란 활력이나 과정과 상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원자 입자의 성질이 본질적으로 역동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115쪽)
- 현대물리학의 두 개의 기본이론은 이리하여 데카르트적 세계관과 뉴턴 물리학의 근본적인 면을 초월하였다. 양자론은 아원자 입자가 독립된 물질의 낱알이 아니라 확률의 모형이며, 분리될 수 없는 우주적 그물 속의 상호 연결이고, 이 그물 속에는 인간 관찰자와 그의 의식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상대성원리는 이 우주의 그물이 본래적으로 역동적이며, 이 활동성이 존재의 본질 자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우주의 그물에, 말하자면 생명을 부여한 것이다.(117쪽)

② 김용호의 제3의 눈: “있음”에서 “빔”의 세계관으로

김용호는 『제3의 눈-시선의 변화와 문명의 대전환』(2011)에서 동양사상과 서구의 새로운 과학이론을 접목시킨 가운데 제3의 눈이 등장하여 문명의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의 주장은 문명에 관한 거대한 담론으로서 경제학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주목할

만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에 관심을 가질 가치가 있다. 그의 핵심 메시지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인류는 제1의 눈(평면시)에서 제2의 눈(입체시)을 거쳐 이제 제3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됨으로써 '있음'에서 '빔'으로 의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3의 눈은 바로 빔의 관점에서 우주만물을 인식하는 눈을 말한다.

- 그의 논지에 의하면 데카르트-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에 의해 한치의 의혹도 없이 '나'와 분리되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제3의 눈이 등장하면서 물체는 사라지고 정신은 없어지며, 나아가 자신도 소멸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그러면서 전혀 뜻밖에 '빔(emptiness)'이 드러나고 펼쳐지면서 우주만물의 근본적인 "의미"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우리는 이제 막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미"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이런 새로운 의식, 즉 온전(whole)을 향한 의식이 태동함에 따라 새로운 문명을 향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인류는 결국 이런 문명을 이룩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 그는 이런 시선의 변화와 이를 가능케 한 이론적 배경,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문명의 질서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사상과 과학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양자물리학자 데이비드 보姆(David Bohm)이 제안한 '펼쳐진 질서(explicate order)'와 '접힌 질서(implicate order)' 및 '의미(meaning)'의 개념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또한 생물학자 루퍼트 쉘드레이크(Rupert Sheldrake)의 형태장(morphic field)와 형태공명(morphic resonance)의 아이디어도 긍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 외에 상대성이론이나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인 양자중첩, 양자얽힘 및 양자요동 등의 개념들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음양사상이나 불교의 중관(中觀)사상 등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경제학과 관련해서는 정보와 지식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됨으로써 물질적인 재화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뚜렷한 구분이 사라지면서 주체와 객체의 구별이 사라지는 등의 현상은 제3의 눈이 다른 분야에서 경험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특히 인터넷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시선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 한 마디로 요약해 그의 주장은 동서양의 사상적·과학적 핵심 내용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라고 폄하하기 어렵다. 그의 주장에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이성적·영성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본다.

※ 참고 사항: 『제3의 눈』의 핵심 메시지

- 우리의 논의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소립자의 특성은 이들을 '있음' 이라고, 혹은 '존재' 라고 부를 수 없다는 데 있다. 소립자들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생겨났다가 순간에 사라진다. 물체란 그 정의상 있음을 지속성으로 한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있음이라 부르기 곤란하다.(34쪽)

- 정보와 지식이 물질적 토대의 자리를 대체해가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들에 따르면 과거 경제의 토대를 구성했던 원자재, 기술, 자본, 노동력은 물론 사회적인 시간과 공간까지도 정보로 대체되어가고 있다. 권력의 토대였던 무력, 조직, 재화도 지식으로 대체되어간다. 추상적이고 가변적인 정보와 지식이 사회의 토대가 되면서 과거 사회의 기반이었던 물질은 아련한 저편으로 사라졌다.(39쪽)

- '나' 와 '대상' 의 이분법적 구분은 두 눈 시선의 착시에 기초하고 있다. '너' 와 구분된 '나' 는 아인슈타인의 표현처럼 시각적 기만이다. '나' 는 시지각의 기만에 따라 생겨난 것이다. '나' 가 미혹된 것이라면 '너' 도 미혹이고, 세상의 모든 사물의 독립된 정체성도 미혹된 시선의 산물이다. 그러나 인간 문명은 분리할 수 없는 것들을 분리해왔다. 그 착각과 미혹에는 대가 없을 수 없다. '나' 라는 것은 일종의 질병이 되었다.(92쪽)

- 빔이 근원적인 질서라면 있음은 표피적 질서다. 그렇다면 있음들로 구성된 우리 세계는 순전한 허상인가? 있음의 세계를 진실과 대립된 허상으로만 규정한다면, 있음에 붙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의미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있음을 허구로, 빔을 실재(實在)로 보는 또 다른 이원론이 될 수 있다. 있음은 분명 뭔가 그 나름의 연유가 있어서 있음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있음과 빔은 분리할 수 없는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음에 틀림없다.(139쪽)

- 모든 사물은 떨림이라는 공통의 방식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가 쳐다보거나 만지면 이들은 이미지로, 냄새로, 물체로 전환된다. 우리는 빔이 있음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파악하게 되었다. 우리의 뇌가 파동을 입자로 바꿔치기하여 보여주고 냄새 맡게 하는 것이다. 뇌는 파동의 물결을 입자 알갱이의 조합으로 바꾸는, 즉 빔을 있음으로 바꾸는 변환기다. 비어 있는 파동은 뇌를 통해, 즉 우리의 의식을 통해, 차 있는 입자로 바뀐다. 이것이 우리가 뇌를 통해 알게 된 빔과 있음의 관계다.(147쪽)

- 몸의 각 부분과 1:1로 대응한다고 가정된 DNA로서는 생명의 온전성을 설명할 수 없다. 여기서 켈드레이크의 상상력이 빛난다. 그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 이라는 관념, 즉 있음을 근원적인 있음으로 설명하려는 원자론적 사고 틀을 뛰어넘는다. 그는 다음과 같이 상상했다. "생물체 전체의 모양새와 대사를 유지시키는 온전한 체계(holistic system)" 가 있고, 그 특성으로 볼 때 이 체계는 "생물체를 둘러싸고 있는 일종의 장" 이다. 그는 이를 형태발생장(morphogenetic field) 혹은 형태장(morphic field)이라고 부르면서 그 작용방식을 설명해 나간다. (157쪽)

● 우리는 생명체를 형태장과의 관계에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있음은 빔과 형태공명함으로써 자신을 생성해나간다. 쉘드레이크는 형태공명이 작용하는 범위를 육체뿐만 아니라 지식과 같은 의식현상으로까지 확장했다. 생명과 무생명의 구분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면 형태공명의 외연은 바위와 불, 태양계로도 확대된다. 우리는 모든 사물을 발생시키는 우주적 '생명 마당' 을 상정할 수 있다.(163쪽)

● 우리는 있음-빔의 관계를 입자-파동의 변환관계로, 저차원-고차원의 발현관계로, 형태-형태발생장의 공명관계로 이해했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 있음과 빔의 관계는 '폼어 펼침' 의 작용으로 포괄할 수 있다. 데이비드 봄이 있음과 빔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 제시한 두 용어는 '싸다(enfold)' 와 '펼치다(unfold)' 이다.(164쪽)

● 의식의 최종 경계를 넘는 일은 보통 사람에게도 가끔 일어난다. 이에 대해 융은 동시성(synchronicity)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동시성과 관련된 현상으로는 염력(psychokinesis)을 들 수 있다. 집중된 마음의 내용이 물리적 변화와 의미 깊은 연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창조적 상상력' 이라는 것도 동시성 현상의 일종이다. 동시성이 의식의 경계를 넘어 관련된 물질적 현실을 끌어들이다면, 이는 바로 그로프(S. Grof)의 피험자들이 경험한 것과 같은 지평에서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182쪽)

● 동시성은 '의미심장한 연관관계' 로 표현된다. 어떤 생각의 내용이 그와 유사한 물질적 현실을 불러들일 때, 양자는 의미를 매개로 짝지어진다. 곧 하나의 의미를 매개로 관련된 의식과 물질의 연결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의식과 물질을 폼어 싼 것을 '의미' 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의미라는 공통분모 때문에 물질과 의식은 상호 소통할 수 있다. 정신과 물질은 의미에 폼어 싸이고, 의미는 다시 의식과 물질로 펼쳐진다.(187쪽)

● 의식을 통해 들어가건, 물질을 통해 들어가건, 동일한 질서를 만나는 것은 정신과 물체의 배후에 이들이 펼쳐내는 공통의 의미의 샘이 있기 때문이다. 이 고차원적 의미 마당을 일버는 초개인 의식 띠라고 불렀고, 유식설에서는 알라야식이라고 불렀으며, 쉘드레이크는 형태장이라고 불렀고, 봄은 폼어 싼 질서라고 불렀을 뿐이다.(196쪽)

● 사회의 기반이 정보로 변했듯이, 정신의 기반도 물체의 기반도 정보로 나타났다. 정보의 핵심이 의미라고 할 때, 모든 사물은 의미로 만들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200쪽)

● 몸과 뜻은 서로 침투하고 중첩되어 있다. 의식과 물질이 상호 침투하고 상호 중첩되는 것은 공통의 근원인 '의미'로부터 파생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원칙상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은 서로 소통할 수 있다. 몸-뜻, 그리고 뜻-몸 과정을 통해 의미가 무한히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한한 것은 궁극적으로 무한한 것에 의존하며, 무한한 것은 유한한 것을 품는다." (205쪽)

● 결국 문명의 전환이란 새 의미체계가 기존의 의미체계를 밀어내는 과정이다. 소통체계의 변화는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문명 간의 투쟁은 궁극적으로 의미투쟁이다.(243쪽)

- 우리의 통념과는 달리, 빔을 사회와 문명의 토대로 세우려는 움직임은 놀랄 정도로 방대한 규모로 진행되어왔다. 문명의 전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252쪽)
- 비어 있는 관계는 그물이 되어갔다. 우리는 그것을 '관계그물' 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인터넷(internet)은 상호그물이라는 뜻으로 그물과 그물의 결합체이다.
(257쪽)
- 제3의 눈은 있음에서 빔을 보았으며, 다름에서 같음을 보았다. '빈 같음' 혹은 '빈 온전' 은 새로운 비전이 나오는 원천이 된다. 요약하면 제3의 눈은 '빔에 기초하여 온전을 지향한다' 고 할 수 있다. 그 비전은 '온전한 앎을 통한 온전한 삶' 이다.(309쪽)
- 온전은 숨겨진 질서의 특성이다. 반면 쪼개짐은 드러난 질서의 특성이다. 분석적 시선은 드러난 있음만 바라본다. 반면 온전한 시선은 있음을 그 내재적 질서인 빔과의 관계에서 봄으로써 시선 자체의 온전성을 추구한다. 온전은 제3의 시선이 바라보는 궁극의 지평이다.(310쪽)
- 있음과 없음, 창조와 진화, 과학과 종교 등 우리가 대립적으로 보는 사물은 나눌 수 없는 온전이 쪼갬의 시선을 통해 차별화되어 펼쳐진 양상이다. 그 차별과 대립의 허상을 실상으로 착각할수록 지식은 편견이 되고 무지스러워진다. 이를 넘는 창조적 상상력은 양극의 뿌리가 같다는 각성, 그리고 양극을 품어 넘는 중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316쪽)
- 붓다가 명백히 지적했듯이 삶의 고통은 무지에서 발생한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앎의 문제다. 낮은 의미 수준의 앎은 무지에 가깝고, 무지에 가까운 만큼 고통을 낳는다. 우리가 '문명의 문제' 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도 그 근본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앎의 수준 문제며, 그 앎이 도달한 의미 수준의 문제다.(341쪽)

2. 새로운 경제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준비

- 새로운 세계관은 무엇보다도 과학적 발견에 근거를 두고 있다. 물리학을 비롯해 복잡계이론, 시스템이론 등에서 이룩한 학문적 성과는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본질을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경제학도 이런 새로운 변화에 맞춰 자본 중심의 경제학에서 인간과 생태계 중심의 경제학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 간단히 말해 새로운 세계관에 의하면 우주의 모든 것들은 깊은 차원에서는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기계론적 세계관을 버리고 유기체적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방법론적으로는 기존의 환원주의적 · 물질주의적 관점을 극복하고 전일적 · 유기체적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리의식을 지양하고 연결의식 내지 전체의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의 활성화는 이것이 결코 형이상학적인 공리공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임을 보여준다.

〈참고 사항: 인터넷과 지식공유〉

인터넷을 지식공유와 더불어 진정한 지식과 사이버 지식을 가리는 객관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의 순기능을 잘 활용하면 새로운 세계관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목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러 사이트들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www.eternea.org, www.closetotruth.com, www.divinitynow.com, www.edge.org,
www.scienceandnonduality.com, www.crackingthenutshell.com, www.bigthink.com

- 새로운 세계관이 과거의 세계관을 압도하려면 적어도 임계치를 넘는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관을 수용한 후 이를 적극적으로 행동에 반영해야 한다. 이것은 특히 정치·경제·문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교육과 홍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식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새로운 세계관이 널리 정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새로운 세계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공유되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나아가 새로운 문명이 태동할 수 있다. 지금 글로벌 차원의 문제들은 새로운 문명의 태동을 요구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해 톰 하트만(Thom Hartman)이 『우리 문명의 마지막 시간들』 (1999)에서 제시한 방법은 지금도 흥미할 만하다. 그는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하는 구문화와 농경문화가 정착했던 7,000년 전부터 시작된 신문화를 구분하였다. 신문화에서는 축적이 가능했다. 그는 이제는 자연의 일방적인 착취를 바탕으로 한 신문화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늘날 대부분 경제 문제, 환경 문제 및 의식 문제는 모두 신문화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그는 구문화의 전통을 우리 시대에 맞게 부활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찰스 아이젠스타인이 말하는 "신성한 경제 = 선물경제" 의 아이디어와 근본적으로 유사하다. 문제는 구문화의 정수를 어떻게 지금의 실정에 맞게 부활시킬 것인가에 있다.

〈참고 사항: 시스템 이론의 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해 주목할 가치가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시스템 이론이다. 프리츠 카프라가 말하는 이 이론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 시스템적 견해(system's view)는 세계를 통합의 견지에서 보는 것이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통합된 전체이며, 그 성질들은 작은 단위의 성질로 환원될 수 없다. 시스템적 접근은 기본적인 구성체나 구성 요소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신 조직체의 기본적인 원리를 강조한다.(337쪽)

- 시스템적 사고는 과정의 사고다. 형태는 과정과 연관되게 되며, 상호관계는 상호작용과 연관되고, 대립되는 것은 왕래하는 진동(振動)을 통해 통합된다. 유기체 패턴의 출현은 구성 요소를 연속하여 쌓아 올린다든지 정밀하게 프로그램된 공정으로 기계를 만드는 것과는 기본적으로 다르게 생겨나는 것이다. 환원주의와 전일론(全一論, holism), 분석과 종합은 상호 보완적인 접근법으로서 적당히 균형을 맞추어 사용된다면 생명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338쪽)

- 살아 있는 유기체는 스스로 조직하는 시스템이며, 구조와 작용의 질서가 환경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 자체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자기 조직의 두 가지 역동적 현상은 자기 갱신(self-renewal; 살아 있는 조직이 구성 요소들을 계속하여 갱생시키고 재순화하면서도 전체적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자기 초월(배우고 발전시키고 진화하는 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창조적으로 초월하는 능력)이다.(341쪽)

● 협력하며 연결을 맺고 서로의 속에 살며 협동하려는 경향은 살아 있는 유기체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물의 세계를 연구할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된다. 과거 수십 년 동안의 생태계 연구는 살아 있는 유기체 간의 대부분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공존과 상호 의존, 여러 가지 정도의 공생을 특징으로 하는 협력적인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경쟁도 있지만 더 큰 시스템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광범위한 협력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354쪽)

● 의식의 본질에 관한 대부분의 이론은 시스템적 접근에서는 상보적이며 타협될 수 있는 두 가지 반대되는 견해 중의 하나의 변형인 듯하다. 이 견해 중의 하나는 서양과학의 견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물질이 주(主)가 되는 것이며, 의식은 생물 진화의 어떤 단계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물질적 패턴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신경과학자들은 이 견해를 가지고 있다.(376쪽)

● 또 다른 의식에 대한 견해는 일반적으로 신비주의적 전통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비주의적 견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의식이 주(主)가 되는 실체이며, 모든 존재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의식은 그 순수한 형태에 있어서는 비물질적이며 형태가 없고,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흔히 순수 의식, 궁극적 실재, 진여 등으로 기술된다. 그것은 우주의 근본이며 모든 것 속에 나타나는 것으로 말해진다. 물질의 모든 형태나 살아 있는 모든 존재는 성스러운 의식의 패턴이라고 본다.(376쪽)

● 그러나 마음에 대한 시스템적 견해는 의식의 과학적 견해와 신비주의적 견해 모두에 완전히 조리가 맞고, 그래서 이 두 견해의 통합을 위한 이상적인 기본 구조를 제공해 준다. 시스템적 견해는 의식은 복잡한 물질의 패턴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재래의 과학에 동의한다. 한편 이러한 시스템들의 생물적 구조는 그 시스템의 자기조직을 나타내는 내재하고 있는 과정들을 따라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자연의 시스템적 견해는 생명과 마음, 의식, 물질의 본질에 대한 오래된 문제에 접근하는 의미심장한 과학적 기반을 마침내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377쪽)

★ 더 나은 경제를 위한 제안

① 글로벌 경제 현황

● 글로벌 차원의 경제현실은 의식의 전환, 이로부터 비롯된 패러다임의 전환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학을 요구하고 있다.

→ 지금의 이원론적·기계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분리의식을 가지고는 성장지상주의, 극심한 불평등,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배금주의 등 무한축적과 경제적 가치만을 중시하는 패러다임을 바꿀 수 없다.

- 현재와 같은 금융자본의 지배가 지속되는 한 자본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성장에 대한 집착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금융자본의 무분별한 수익률 추구를 억제할 수 있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토마 피케티가 제안한 누진적 글로벌 자본세라든가 금융거래에 부과되는 토빈세와 같은 조세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

- 인간의 모든 행동은 사고방식, 즉 의식의 반영이므로 의식의 전환이 전제되지 않는 물리적 변화는 모두 허상이요 일시적이다. 그런데 지금의 경제현실은 우리 의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간과하고 있는 이유는 현실이 제공하는 물질적 달콤함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용호 교수의 주장대로 제3의 눈을 가져야 한다.

- 2008년의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적 위기는 기존의 주류 경제학에서 주장하듯이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복잡계 이론이나 시스템 이론은 방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를 무시하는 가운데 기존의 경제모델을 그대로 활용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잘못된 모델에 입각한 잘못된 정책은 또 다른 파국을 불러올 뿐이다.

→ 이런 이유에서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2016년 또는 이후 어느 땐가 반드시 2008년 보다 더 큰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을 내놓고 있다. 물론 금융시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은 시장의 폭락에 배팅하는 경향이 있기에 이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조심해야겠지만, 그들의 지적에 전혀 근거가 없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② 새로운 경제관을 위한 보완 대책

- 지속 가능한 성장의 의미 재정립: 이것은 생태계까지 아우르는 생물권 의식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의 추구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는 저성장 내지 역성장도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널리 공유해야 한다. 이것은 수익률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논리를 극복하고 금융자본주의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로버트 쉘러가 말하는 금융민주주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나아가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찰스 아이젠스타인이 다시 제시한 “역이차율 화폐 시스템”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

- 경제적 풍요의 진정한 의미 공유: 물질적 풍요는 정신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경우에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정신적 가치를 폄하하거나 박탈하는 경제성장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평화공존을 저해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부유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를 지원하는 것이 곧 자신과 자기 나라를 돕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은 분리의식에서 합일의식으로 발전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톰 하트만(Thom Hartman)이 주장하듯이 구문화로부터 부(富)와 경제적 풍요의 진정한 의미를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팽창하는 소비문화에 중독되어 있기에 이를 위한 맹목적인 부의 추구에 탐닉하고 있다. 구문화에서 말하는 부의 정신은 서로의 안정과 풍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참고 사항: 톰 하트만의 제안〉

하트만은 『우리 문명의 마지막 시간들』(1999)에서 생태계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해 문화적 관점에서 중요한 제안을 하였는데, 지금도 유효하다.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물질적 욕구의 충족만을 위한 부(富)가 아니라 인간을 영적, 정신적, 감성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부의 축적을 추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구문화는 신문화보다 훨씬 우수했다.
- 시장원리의 무분별한 적용으로 인해 공동체가 대부분 파괴된 지금 구성원들이 신성(神性)을 일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환경과 안정 및 안녕을 제공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는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 인류가 다른 모든 창조물들과 분리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 내부에서는 아주 뿌리 깊은 단절이 일어났다. 세상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우리와 분리되어 있으며, 인류의 신성한 의무는 이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라고 결정했을 때, 우리는 인류를 탄생시킨 권능 및 영성과 단절되고 만 것이다. 분리의식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 새로운 에너지원까지 신문화 방식으로 사용될 경우, 인구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인간과 경쟁관계인 종과 자원들은 더 많이 파괴될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에너지원이 아니라 생활철학이다. 생활철학은 우리 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바꿔야 하며, 이 변화는 지금 당장 절실하게 필요하다.
-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메슬로가 주장한 가설, 즉 인간의 본성은 선하고 본능적으로 신성을 추구하며, 상처 입은 폭력적인 인간을 만들어내는 병든 문화 속에서 성장할 때에만 인간은 역기능을 하게 된다는 가설이 옳다는 것을 인류학 사료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사실 우리는 모든 창조물에 내재한 신성을 본능적으로 자각하고 경외심을 느끼도록 태어났으며, 우리의 기본 본능은 사랑과 동정심이다.

● **새로운 이야기(story, narrative)의 창조:** 사람들은 이야기에 끌린다.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가에 따라 사회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탐욕의 이야기는 불평등의 악화를 강화할 것이고, 평화공존의 이야기는 일방적인 축적보다는 공유 정신을 확산시킬 것이다. 사람들은 그럴듯한 이야기에 동조하고 이에 맞춰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다.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이를 모방하는 것이 진화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이런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이야기를 만들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공유경제와 선물경제의 아이디어를 널리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돈의 의미 재정립:** 궁극적인 인클로저 또는 분리의식의 상징으로서 화폐(돈)의 의미를 재정립해야 한다. 돈, 즉 화폐가 갖는 구매력의 원천으로서의 본질과 언제 어디에서도 통한다는 특별한 기능으로 인해 사람들의 돈에 대한 집착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이 지적했듯이 돈으로 살 수 있는 대상이 무한정 확장되는 가운데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라도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의 조화를 추구하는 사회적 차원의 운동이 필요하다. 우선 무엇보다도 건전한 사회규범이 정착해야 한다.

- **균형이론의 보완:** 주류경제이론은 근본적으로 경제를 “닫힌 균형 시스템(closed equilibrium system)”으로 간주하고 균형이론(equilibrium theory)의 관점에서 시장을 분석해왔다. 경제이론은 시장균형을 전제하지 않고는 아무 것도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 현실의 경제는 본질적으로 역동적이며 불균형 상태가 지배적이다. 현실 경제는 “열린 불균형 시스템(open disequilibrium system)”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것은 열역학 제2법칙, 즉 엔트로피(entropy) 법칙을 고려한다면 더욱 분명하다. 이 점은 금융시장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오늘날 금융시장을 모든 것이 안정된 상태인 균형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너무 많다. 모든 금융위기가 그 증거다. 그렇지만 대체로 안정적인 시장도 존재하므로 균형이론을 모두 폐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균형이론을 보완한다는 관점에서 경제현실의 분석에 복잡계 이론이나 시스템 이론을 적용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적절한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전통 경제학에서는 단기적 성과와 이에 대한 보상으로 금전적 혜택만을 강조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조해왔다. 왜곡된 인센티브 시스템이 금융위기의 원인들 중 하나라는 비판이 의미하듯이 왜곡된 인센티브 시스템은 커다란 부작용을 초래한다. 인센티브 시스템이 전무했던 공산주의 경제가 비효율로 몰락했듯이, 왜곡된 인센티브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많은 연구가 시사하듯이 새로운 인센티브 시스템은 장기적인 성과를 중시해야 하며 동시에 금전적·규범적 측면에서 모순이 없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 **공유경제와 선물경제의 활성화:** 주류 경제학에는 공유경제와 선물경제에 관한 논의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그 이유는 모든 경제주체는 도구적 합리성 (institutional rationality)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 아님은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의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도구적 합리성 이외에 사람들이 고려하는 가치로는 협력, 배려, 공감 등이 있으며 이것은 공유경제와 선물경제를 통해

실현 가능하다. 이런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존재하는 한 공유경제와 선물경제는 무시할 수 없는 경제활동의 일부로 부상할 것이다.

<주요 참고 문헌>

- * 프리초프 카프라,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범양사(2006)
- * 김용호, **제3의 눈-시선의 변화와 문명의 대전환**, 돌베개(2011)
- * 찰스 아이젠스타인,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 김영사(2015)
- * 데이비드 오렐, **경제학 혁명**, 행성:B웨이브(2011)
- * 데이비드 봄, **전체와 접한 질서**, 시스테마(2010)
- * 닐 존슨, **복잡한 세계, 숨겨진 패턴**, 바다출판사(2015)
- * 마크 뷰캐넌, **내일의 경제**, 사이언스북스(2014)
- * 톰 하트만, **우리 문명의 마지막 시간들**, 아람드리미디어(1999)
- * 에릭 바인바커, **부는 어디에서 오는가**, 알에이치코리아(2015)
- * 이정전, **왜 우리는 정부에 배신당할까?**, 반비(2015)
- * Ervin Laszlo(ed.), **The Consciousness Revolution**, ELF Rock(2003)
- * Fritzof Capra, **The Systems View of Life**, Cambridge University Press(2015)